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지실천사례 발굴

광주복지재단 ‘광주복지 36.5℃ 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이혜숙씨 ‘행복한 동반자(은퇴를 하면서)’ 등 총 6편 당선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28일 오전, ‘광주복지 36.5℃ 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 관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지실천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따뜻한

‘복지공동체 광주’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34편의 수기가 접수돼 엄중한 심사과정을 거쳐 당선작 6편(대상, 최우수상2, 우수상3)이 최종 선정됐다. 한편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이혜숙(61)씨의 ‘행복한 동반

자(은퇴를 하면서)’가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으며 진정한 복지실천사례로 평가되며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혜숙씨는 지난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반자’사업의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녀는 “14년간의 동반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은퇴를 했지만 앞으로도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광주시민과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느낀다”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에 힘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주복지 36.5℃ 실천사례 공모전’ 당선작

△ 대상 이혜숙씨(61세) ‘행복한 동반자(은퇴를 하면서)’

△ 최우수상 최자철씨(62세) ‘복지마을 공동체 사업 사례관리동행단 참여를 통하여’ △ 최우수상 이선화씨(51세) ‘희망의 두레박’

△ 우수상 임경민씨(28세) ‘맛집은 손에서 시작되는 당신의 미소’

△ 우수상 윤한나씨(34세)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 우수상 나흥대씨(56세) ‘들어주고 공감하고 존중하고(3G0)’



화순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온정 나눔

여성지도자협, 어려운 이웃 1086가구에 김치 전달

화순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화순군여성지도자협의회(회장 양경자) 주관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9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여성지도자협의회(회장 양경자)가 주관한 김장김치 담그기에는 새마을부녀회, 고향생각주부모임, 여성회, 고향생각주부모임, 여성회, 한국생활개선연합회, 한국부인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여성자원봉사협의회, 21세기여성발전협의회, 청년지기봉사단, 우리봉사단 등 지역 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

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조손가정, 취약계층 등 1086가구에 전달됐다. 양경자 화순군여성지도자협의회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여성단체와 자원봉사단체 회원, 화순소방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암읍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반찬봉사

독거노인·장애인 35세대 전달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제기, 민간공동위원장 유혜숙)는 지난 25일 추운 겨울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 및 장애인 35세대를 방문하여 배추김치와 계란을 전달하였고, 더불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

다. 매일 1회 전달되는 반찬나눔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중 하나로 반찬을 만들기가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대상자들의 영양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날 반찬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담근 배추김치를 정성껏 포장해 전달하여 더욱 의미 있는 봉사가 되었다.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반찬봉사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구호비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군, 장애인일자리아동성희롱 예방교육

곡성군이 지난 27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2019년 장애인일자리아동 참여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교육이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전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관련 법령과 피

해자 구제절차 등을 실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안내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곡성군은 매년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KT, 360도 카메라 활용 시각장애인과 동행

KT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국립서울맹학교 종로캠퍼스와 용산캠퍼스에서 360도 촬영이 가능한 ‘핏 360’(FIT360)과 내가 있는 곳을 360도로 보여주는 ‘리얼 360’ 시연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KT의 대표 5세대(5G)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리얼 360’은 두 손이 자유로운 웨어러블형 360도 카메라인 ‘핏 360’으로 촬영된 영상을 수신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 팔로우에 실시간으로 전

송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인 ‘리얼 360’의 기능을 설명하고 활용 가능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불편함이 있다”며 “본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리얼 360’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